

발표요약문

발표 요약문

전자상거래가 해운 및 항만 물류에 미치는 영향 : 아세안 이커머스 마켓

키워드: 전자상거래, 해상운송, 수요예측

국제 B2C 전자상거래 매출은 2014년 1조 3000억 달러에서 2021년 4조 2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이 수치는 온라인 수익이 대략 3배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온라인 구매의 편리성과 비용 효익을 점차 추구함에 따라 국제 B2B 전자상거래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성장은 국제 물류의 모델을 재정의한 바 있다. B2C 부문에서 소비자가 빠른 배송을 요구함에 따라 주문처리센터와 라스트 마일 배송의 복합 네트워크와 통합된 항공 운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반면에 B2B 부문에서는 주로 주문량이 많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비용을 고려해 국제 운송으로 해상 운송이 여전히 옵션으로 남아 있다.

두 부문 모두에서 해운사와 물류업체는 일상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화물운송, 주문처리, 세관 규정의 준수 등과 같은 운송의 주요 측면에서 혁신과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업계가 복잡한 운송 프로세스를 보다 디지털화·표준화해 최종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물류 중심 기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국경간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 세계 도소매 부문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상당한 물량과 높은 데이터 가용성, 인공지능기술의 고도화가 맞물려 국제 운송수단으로 해상운송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상운송은 운송 규모의 경제로 비용을 고려해 선호되는 옵션이 될 것이며, 수요 패턴에 적용된 예측 기술을 통해 주문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컨테이너 항만의 경우, 주요 전자상거래 출발지/도착지 시장의 네트워크 연결 개선, 항만 내부나 인근에 지역주문처리에 도움이 되는 생태계의 구축으로 중점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터미널 운영사는 터미널을 넘어 내륙 물류와 주요 시장의 라스트 마일 배송으로 공급망 관리를 확장함으로써 각각의 서비스 제공을 개선할 수 있다.